

티벳의학에 대한 고찰(II)

I. 緒論	68
II. 本論	69
1. 概說	69
2. 人體의 發生學	69
1) 受精	69
2) 妊娠의 조건	70
3) 胎兒의 發育	71
4) 男女 性別의 決定	72
3. 人體의 比喩	73
4. 人體의 生理	73
1) 人體를 구성하는 物質의 生理的인 量	73
2) 人體의 解剖圖	74
5. 血脈의 정상상황	75
1) 初成脈(channel of embryonic formation)	75
2) 依存脈(channel of existence)	76
3) 連結脈(連接脈-channel of connection)	76
4) 壽脈(course of lifespan principle)	78
6. 손상받기 쉬운 신체부위(vernerable point)	80
7. 孔竅	80
III. 結論	82
參考文獻	83

티벳의학에 대한 고찰(II)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교실
張恩英 尹暢烈

I. 緒 論

티벳의학은 現存하는 古代醫學중의 하나로서 그 傳統을 잘 繼承하여 현재까지도 施術되고 있으며¹⁾ 歷史적으로도 意義가 매우 깊다. 티벳의학이란 특히 西藏地區의 醫學을 말하며 8세기경에 체계화되기 시작하여²⁾ 현재에는 機關化, 專門化되어 있으며 印度, 부탄등의 지역에도 藏醫院이 있어 臨床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티벳은 密敎가 가장 繁盛했던 지역으로 현재에는 死藏되다시피 한 後期 密敎의 經典이 티벳에서 다수 발견되는 것을 보아도³⁾ 그 융성했던 정도를 가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티벳이 高山에 둘러싸여 있어, 文明이 전파되기도 어렵지만, 한번 전파가 되면 오랫동안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까닭이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특징을 지닌 티벳의 密敎는 그들의 토착 종교인 bon敎와 融和, 發展하게 되며, 그래서 티벳의 密敎를 특징지어 라마교라고 지칭한다⁴⁾. 이 密敎의 특징은 人間의 五感을 충분히 활용

하여 자신의 內面 또는 全身에 神, 佛, 宇宙라고 하는 超越的 存在를 직접 파악하여 一體化하려는 思想에 있으며, 醫學이란 解脫에 이르는 苦行중의 하나라고 간주하므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종교적 색채가 강한 티벳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⁵⁾. 또한 독특한 輪廻說로 人體란 잠시 머물다가는 住居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意識이 만연되어 있으므로 死體를 遺棄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여 이것이 解剖學의 발달을 가져왔다고 한다⁶⁾.

이러한 地域的, 宗教的 特色을 지닌 티벳에서는 <四部醫典>을 最大의 經典으로 삼고 있으며, 醫學學院에서는 이 經典을 暗誦하는 것을 주요 시험과제로 삼는다고 한다⁷⁾. 이 經典의 著者는 gYu-thog Yon-tan mGon-po로서, 8세기말에서 9세기초에 이 책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全體는 <根本醫典>, <論說醫典>, <秘訣醫典>, <後續醫典>의 4개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韓醫學에서의 <黃帝內經>과 마찬가지로 人體의 生理, 病理, 施治, 養生法 등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內容에 있어서는 더욱 體系가 잡혀있고 內容의 區分이 명확하다.

1) Anthony Aris : Oriental Medicine, An illustrated Guide to the Asian Arts of Healing, London, 1995, p.109.
2) 俞慎初 : 中國醫學簡史, 福建省,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3, pp. 8-9.
3) 김두생역 : 밀교의 역사와 문화, 서울, 민족사, 1994, p. 16.
4) 남현옥역 : 중국불교와 불교문화, 서울, 우리출판사, 1993,

p. 31.

5) 홍윤식 : 만다라, 서울, 대원출판사, 1992, p. 15.

6) 장한기 : 티벳과 인도, 네팔의 문화산책, 서울, 한미디어, 1995, p. 30.

7) Anthony Aris : Oriental medicine, An illustrated Guide to the Asian Arts of Healing, London, Serindia Publications, p.111.

《四部醫典》중에서 第二部に 속하는 《論說醫典》은 《根本醫典》에 요약되어 있는 醫療行爲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내용이다. 모두 31개의 章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11가지의 要點으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本論文에서는 이 중에서 根本精華點과 生理形成點에 해당하는 第1, 2, 3, 4章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本 論

여기에서는 《四部醫典》의 第2部인 《論說醫典》중에서 第1, 2, 3, 4章을 살펴보기로 한다. 각각의 제목은, 第1章 概說, 第2章 人體의 形成, 第3章 身體의 比喻, 第4章 人體의 生理로 되어 있다. 참고한 서적중에는 中國 해석판과 英文 해석판이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英文의 해석에 치중을 두었다. 그 까닭은 中國 해석판이 唯物論의인 입장에서 정신적인 측면을 중시한 내용을 거의 전부 삭제하여 번역하였기 때문에, 輪廻나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四部醫典》의 本義를 살리지 못한다고 思慮되어, 本文의 解釋에 치중한 英文 해석판을 주로 참고하였다.

1. 概 說

본 《四部醫典》의 특징중 하나는, 전체의 글이 부처들의 문답형식으로 되어있다는 점이다. 질문을 하는 것은 心生大仙(Manasija)이라고 하는 부처이고,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은 명지대선(Vidyajana)이라고 하는 부처이다. 이 두 부처들은 모두 導師世尊活命醫聖琉璃光王(Bhaisajyaguru)의 化身들이며,

전자는 世尊의 혀에서 나와 衆生의 말로 인한 허물을 씻어주고, 후자는 衆生의 모든 마음에 있는 허물과 無明蒙昧에서 오는 三毒諸症을 씻어준다고 한다.

본편은 心生大仙이 明智仙長에게 《論說醫典》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에 대하여 明智大仙이 대답하기를 “六道の 衆生중에서 우두머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建康하고 長壽하며 安樂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하고자 한다. 醫學은 4개의 方面을 포괄하고 있다. 1. 身體와 疾病, 2. 藥物, 3. 治療方法, 4. 醫師의 道理가 그것이다. 그 중에서 1은 生理와 病理의 2개 方面으로 나눌 수 있고, 治病의 方法은 ①起居行爲 ②飲食과 飲料 ③藥物 ④手術과 같은 4개 方面으로 나눌 수 있다. 治療하는 方法에는 두가지 側面이 있는데, 建康을 유지하는 것과 病이 들었을 때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다. 치료는 辨證, 治療方法, 治療施治등의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11가지가 《論說醫典》에서 講論할 내용인 것이다.”

2. 人體의 發生學

1) 受精

이는 일차적인 원인과 이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일차적인 受精의 原因은 환생하려는 意識이 어머니의 子宮안에서 아버지의 精子和 子宮血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차적인 원인은 五源⁸⁾, 즉 地, 水, 火, 風, 空인데, 이들이 없이는 육체적인 발육이 불가능하다.

意識에는 네가지 종류가 있다. 평범한 사람은 子宮에 들어갈 때 자신의 과거와 미래의 탄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새로운 육체에서도 모르는 상태로

8) 五源: 티벳의 서적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 되는 오원에는 두가지가 있다.

있게 된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의 意識은 子宮에 들어갈 때 과거와 미래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子宮에 있는 동안에 이 지식을 잃어버린다. 도를 이루지 못한 보살과 이기적인 부처의 意識은 과거와 미래의 탄생에 대해서 子宮에 들어가고 환생하는 동안에도 알고 있으나, 새로운 육체에 들어가서는 모르게 된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보살은 과거와 미래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새로운 육체에 들어가서도 이 기억을 잊지 않는다. 부다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한 보살들은 환생의 장소를 자유롭게 고르는데, 미래의 아버지의 입을 통해 들어가서 그의 精子를 통하여, 어머니의 子宮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이론은 지극히 종교적인 관점으로, 티벳에서는 이런 輪廻를 믿어서 달라이 라마나 판첸라마를 선전할 때에도 輪廻한 사람을 찾아서 대를 잇도록 하고 있다.

2) 妊娠의 조건

妊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父精과 母血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한 精子는 흰 액체로 무겁고, 양이 많으며, 달콤하고 쓴 맛을 둘 다 가져야 한다. 반면에 정상적인 子宮血은 茜草汁이나 산토끼의 血液과 같이 색이 붉어야 하며, 둘다 옷에 묻었을 때 그 자국은 쉽게 지워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精液과 血液이 깨끗하여 無病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월경은 열두살경에, 영양분이 더이상 각 臟器를 성숙시키는데 완전히 소비가 되지 않을 때에 시작되며, 오십세경에 각 臟器가 전반적으로 약해지면서 그치게 된다. 여성의 月經血은 흡수된 음식물의 精華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는 각 달의 제 16일과 30일 사이에 “太陽”의 생식에 관여하는 체액이 상행하는 때에 자궁옆에 있는 두 개의 經絡을 통하여 생식을 위한 체액의 저장소⁹⁾에서 자궁으로 운반되어진다.

이 때 혈액은 검은색을 띄고 냄새가 없다. 각 달의 첫 보름사이에 “清下風”¹⁰⁾에 의해서 子宮으로부터 3일간 血液이 밖으로 나오므로써 子宮을 妊娠에 대비시키는데, 이것이 월경이다.

妊娠 자체는 월경이 끝난 후인 9일동안에 일어날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치면 妊娠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12일째에는 子宮口가 해질 무렵의 연꽃처럼 닫히게 되어 다음 월경주기까지 妊娠은 불가능하게 된다.

精子和 子宮血의 질병때문에 妊娠이 이루어지지 않는 몇가지 경우가 있다. 風이 원인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양쪽의 액체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띠게 된다. 촉감이 거칠고, 어두운 색을 띠며, 쓴내가 난다. 다음으로 膽汁이 원인인 경우에 그 증상은 신맛, 노란색과 지독한 냄새가 난다. 粘液이 원인인 경우, 액체는 옅은 회색을 띠고, 끈적거리며 만져보면 차갑고 맛은 달콤하다. 血液이 원인인 경우에 액체는 부패하게 된다. 血液과 膽汁이 원인인 경우, 액체는 몹시 혼탁하여 고름에 가깝다. 粘液과 膽汁이 원인인 경우에는 응고하게 된다. 風과 膽汁이 원인인 경우, 액체는 수분이 적어지며 양이 격감한다. 이들의 상황은 모두 치료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원인이 이들이 서로 합성된 것이라면, 子宮血과 精液은 대변, 소변과 양상이 비슷해지며, 치료가 불가능하다.

妊娠은 또한 地, 水, 火, 風, 空의 五源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이들은 각각 固體, 接着, 發育, 成長과 발육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일에 관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妊娠이 될 때에는 精液과 子宮血이 모두 완벽해야되며 五源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9) 생식을 위한 체액의 저장소: 이 영년씨는 三焦綱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혹자는 남자에 있어서는 정낭, 여자에 있어서는 난소라고 하여 명확한 해석이 없다.

10) 清下風: 五種의 風(티벳어로는 崩)중의 하나. 존재하는 부위는 肛門이며 大腸, 膀胱, 陰器, 大腿內側 등의 부위를 운행하며 精液과 經血, 大小便의 排泄 및 胎兒가 태어나는 것을 관장한다.

3)胎兒의 發育

臍帶는 胎兒가 발육성장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胎盤의 좌우에 있는 두가닥의 血管은 臍帶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재생산을 위한 체액의 저장소에도 통하고 있어 어머니의 신체에 있는 精華를 흡수하게 된다.

다음은 38주 동안 풍의 작용에 의하여 태아가 자궁에서 발육하는 과정이다.

- 1주 - 精液과 子宮血이 엉김.
- 2주 - 胎芽의 응고
우유위에 엉기는 덩어리처럼 됨.
- 3주 - 凝乳가 형성되는 모양으로 胎芽가 굳어짐.
男兒를 원한다면 이 시기에 전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써야 한다.
- 4주 - 胎芽가 타원형으로 둥글어짐.
굳은 원형일 때에는 남자아이가 되고, 부드러운 상태일 때에는 여자아이가 되며, 타원형일 때에는 중성이 된다.
이 시기에 산모는 허리가 무겁고 몸이 마르며 식욕이 없고 항상 하품을 하며 피곤하여 나른하고 유방이 커지며 신맛이 나는 음식을 찾게 된다. 이 때에는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주어야 한다. 만약 주지 않으면 왕왕 기형, 유산 혹은 태중에서 죽게 된다.
- 5주 - 臍帶의 형성
- 6주 - 생명의 經絡이 형성 - 臍帶에 依存하는 命脈이 점차 형성
- 7주 - 눈이 처음으로 형성
- 8주 - 머리 모양이 형성
- 9주 - 신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형체가 형성
이 시기는 태아에게 四肢가 형성되기 전이므로 '물고기의 시기'라고 불린다.
- 10주 - 어깨와 엉덩이가 처음으로 돌출
- 11주 - 감각기관인 九竅의 첫 형성

- 12주 - 五臟이 처음으로 형성
- 13주 - 六腑가 처음으로 나타남
- 14주 - 어깨와 엉덩이로부터 四肢가 처음으로 형성
- 15주 - 팔과 아랫다리가 처음으로 나타남
- 16주 - 손가락과 발가락이 처음으로 나타남
- 17주 -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신체의 부분을 연결하는 經絡이 처음으로 형성

10주에서 17주에 이르는 이 시기를 태아에게 四肢와 머리가 형성되었으므로 '거북이의 시기'라고 부른다.

- 18주 - 근육과 지방조직의 형성
- 19주 - 건과 인대가 형성되는 시기
- 20주 - 골조직과 骨髓가 형성되는 시기
- 21주 - 몸이 外皮로 덮임
- 22주 - 감각기관인 九竅가 열림
- 23주 - 머릿칼, 體毛, 汗空과 손톱 발톱이 자람
- 24주 - 五臟六腑가 분명하게 성숙하고 知覺이 있게 됨
- 25주 - wind가 흐르기 시작 - 氣가 유통하기 시작
- 26주 - 정신적인 기억력이 분명해짐 - 의식이 뚜렷해 짐

27주부터 30주까지는 태아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완성됨

31주에서 35주까지 - 태아가 전체적으로 커짐

이 시기에는 태아가 깨닫지 못한 찌꺼기를 섭취하므로 '돼지의 시기'라고 부른다.

- 36주 - 명백한 불만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불만족스런 외부환경에 기인)
- 37주 - 거꾸로 서려는 충동이 자람

38주 - 거꾸로 섬

妊娠의 徵兆는 다음과 같다. 몸이 나른하고 골반이 벌어지는듯 하며 하체가 무겁고 허리에 통증이 있으며 臍部와 小腹에 刺痛이 있고 생식기가 外翻되며 소변이 頻數해지고 尾骨부위에 통증이 있게 된다. 이때에는 경험있는 經産婦가 看護를 해야하며 營養에 주의해야 한다.

妊娠의 과정에서 精子는 골조직과 척추를 발생시키고, 子宮血은 근육조직, 血液과 臟腑를 발생시킨다. 意識은 그 자체로써 五官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태아가 정상적인 유기체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五源으로 알려진 이차적인 원인이 필수적인데, 이는 이들이 각각의 세가지 일차적인 원인을 섞어서 組織, 臟腑와 감각기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태아는 어머니의 재생산을 위한 체액의 저장소와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五源에서 발생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근육과 골조직이 태에서 나는 냄새와 코와 함께 발생.
- 血液이 혀와 水의 다양한 맛에서 생기는 성질인 습기와 함께 발생.
- 火에서 熱氣와 안색의 맑은 것이 발생
- 風에서 습동이 발생.
- 虛空에서 귀와 소리와 함께 五官이 발생.

4)男女 性別의 決定

고유한 과거의 업보와 여러가지 갈등하는 감정에 의해서 意識이 子宮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의 자연스러운 성향과 인과관계는 각각의 부모의 것들에 따르게 된다. 태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정신은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性에 속하는 감정을 갖지 않는데, 이는 과거의 생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카르마에 의한 선입적인 애호에 의해서 남자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면, 그 意識은 아버지를 싫어

하고 어머니에게 끌리며, 동시에 자신을 아버지의 精子和 동일화하면서 남성적인 意識으로 발전해 간다. 그 반대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정신이 어머니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아버지에게 이끌리며, 자신을 어머니의 “血液”과 동일화한다.

또 날짜로 정해지는 이론도 있다. 만약 妊娠이 월경이 끝난 후의 제1, 3, 5, 7, 9일에 성립되면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2, 4, 6, 8일에 妊娠이 되면 여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한다.

아이의 性은 妊娠의 날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태아의 복합체에서 精子和 血液의 우세한 정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精子가 우세한 경우에는 남자가 태어나며, 血液의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 양쪽이 같은 양이면 兩性이 태어나게 된다. 만약 태아가 風에 의해서 나누어 지면, 쌍둥이, 세쌍둥이 등등이 태어나며, 그들의 性은 精子和 血液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또 걸으로 드러난 산모의 배의 모양이나 유방의 상태등으로 性別을 추정할 수도 있다. 男兒는 子宮의 오른쪽에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女兒는 왼쪽에 이 자세를 취한다. 이 두가지가 섞이면 兩性者가 태어날 것이다. 만약 양쪽이 다 돌출하면 쌍둥이가 태어날 것이다. 유방이 오른쪽이 크고 젖이 나오면서 產母가 男兒의 꿈을 꾸면 아들이라는 징조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딸이라는 징조이다.

妊娠후에 따르는 38주동안, 胎芽와 胎兒의 발전은 잘 정의된 단계를 거쳐서 거꾸로 뒤집어져 子宮을 떠나게 된다. 출산의 지연은 대개 어머니가 많은 양의 血液을 잃어서 태아의 발육이 늦어졌을 때, 혹은 너무 많이 먹어서 子宮의 지방증을 유발한 경우, 혹은 風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엉겨서 태아의 產道를 막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妊娠은 10개월에서 12개월을 끌거나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3. 人體의 比喻

韓醫學에서의 <內經>중 <靈蘭秘典論> 과 유사한 부분으로 人體의 해부학적 구조를 家屋에 비유하고, 五臟六腑를 맡은 직책에 따라 비유하고 있어서 韓醫學과 비교하면 매우 意義있을 것이라고 思慮되는 章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덩이 뼈는 벽의 기초와 같다
 척추는 금화를 쌓아 올린 것과 같다
 생명의 經絡은 중심이 되는 기둥(agate pillar)과 같다

가슴뼈는 크로스 빔과 같다
 24개의 갈비뼈는 서까래와 같다
 늑연골은 갈비뼈를 지지하는 까치발과 같다
 경락, 건, 인대들은 천장의 두꺼운 판자들과 같다
 근육과 피부는 집을 감싸는 색깔이 칠해진 석고와 같다

두개의 쇠골은 집의 처마복공과 같다
 두개의 어깨뼈는 측면의 버팀벽과 같다
 머리는 건물의 작은 탑이나 가장 높은 사당과 같다

다섯가지의 감각기관은 집의 창문과 같다
 오른쪽과 왼쪽귀는 Garuda 석루조(괴물형상으로 만든 돌-이무기돌)와 같다

두개골은 중국집의 지붕과 같다
 뒷쪽의 fontanelle는 굴뚝과 같다
 콧구멍은 뽕죽탐과 같다
 머리털의 술은 지붕의 타일과 같다
 두 팔은 실크로 된 길이와 같다
 윗쪽과 아랫쪽의 軀干은 위와 아래의 마당과 같다
 황격막은 실크로 된 커튼과 같다

心臟은 왕관을 쓴 왕과 같다
 뒷쪽의 5葉의 肺는 내무부장관과 같다
 앞쪽의 5葉의 肺는 왕자와 공주같다
 肝은 정실왕비같다
 脾臟은 둘째 왕비같다
 腎臟은 외무부장관이나 들보를 들어올리는 선수들

과 같다
 생식에 관여하는 체액의 저장소는 보석을 저장하는 보고와 같다
 胃腸은 조리용 냄비와 같다
 小腸, 大腸은 두 여왕을 보좌하는 家臣과 같다
 膽囊은 양념으로 가득찬 주머니와 같다
 膀胱은 꼭찬 물항아리같다
 두 陰門은 낙수출통같다
 두 다리는 아이치형의 페디멘트(고대건축의 삼각형의 박공벽)와 같다
 민감한 신체의 부위는 王을 대표하는 자와 같다

위의 내용은 사람이 다리를 가부좌하고 팔을 양 옆으로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과 황제의 궁전을 비교하면서 설명한 것이다. 이들 지점에 어떤 치명적인 일이라도 일어날 경우는 마치 임금과 같은 심장이 교란되어 생명이 인체로부터 떠날 것이다.

4. 人體의 生理

1) 人體를 구성하는 物質의 生理的인 量

이는 건강한 有機體에 있어서 身體를 구성하는 물질의 용량에 관한 것인데, 티베트인들은 그 해부학의 발달로 모든 구성물질에 있어서 숫자적으로 정해져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측정의 단위는 두손을 물을 뜨듯이 하여 모은 것, 한손을 뜨는 자세로 하는 것, 두손을 오므려서 합친 것을 쓰고 있는데, 이를 편의상 각각 捧, 把, 握으로 命名하기로 한다.

wind의 양은 膀胱의 용량과 같다.
 bile의 양은 陰囊의 부피와 같다.
 phlegm의 양은 3捧이다.
 血液의 양은 7捧이다.
 大便의 양은 7捧이다.

小便의 양은 4掬이다.
 림프액의 양은 4掬이다.
 기름기의 양은 2掬이다.
 지방조직의 양은 2掬이다.
 色澤(vital fluid)의 양은 1把이다.
 精液의 양은 1把이다.
 腦의 양은 1掬이다.
 근육조직\肌肉의 양은 500掬이다.
 여성에 있어서, 유방은 10掬이다.
 여성에 있어서, 대퇴부는 10掬의 肌肉을 더 갖고 있다.
 母乳의 양은 2掬이다.
 月經量은 4掬이다.

2) 人體의 解剖圖

여기에서는 人體를 각각 앞면, 뒷면으로 나누어 解剖圖를 제시하여 人體를 구성하고 있는 汗孔, 骨格, 關節, 五臟六腑 등을 열거하고 있다.

티벳의학에서 특이한 것은 人體를 百會에서 會陰까지 32칸으로 나누고, 한쪽 腋窩橫紋에서 맞은 편까지를 16칸으로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부합되는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간주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臍구멍의 수

쇄골위로 (9칸)	700,000	
오른팔	350,000	
왼팔	350,000	
軀干(23칸)	1400,000	
오른다리	750,000	
왼다리	750,000	총3500,000

② 脈

▶脈의 종류 23종

5종의 머리脈

두개골, 목 뒷脈, 코脈, 치주골, 턱脈

9종의 軀間脈

영당이脈, 어깨脈, 쇄골, 가슴脈, 갈비, 치골,

천골, 척추골, 척추골의 일부

3종의 上肢脈

윗팔, 아래팔, 주먹

5종의 下肢脈

대퇴, 무릎, 발꿈치, 발목, 발가락 손가락과 발가락이 삼입되는 부분

▶脈의 갯수 360개

4 두개골脈

8 뒷머리脈

2 뒷목脈

32 치아

32 치주골

2 쇄골

28 척추脈

15 가슴脈

24 갈비脈

2 작은 갈비脈

2 골반脈

1 척추脈의 일부

2 선골

6 팔脈 (20개, 2 팔꿈치, 2 손목)

50 손脈

60 손가락과 발가락脈

20 손톱과 발톱이 들어가는 부분

70 다리脈

③ 關節

四肢의 큰 關節 12개

小關節 210개

④ 건과 인대

큰 건 16개

인대 900개

天突穴 300개

四肢 각각에 75개

軀干에 300개

⑤ 臟腑

첫번째 臟 心臟

첫번째 腑 胃

둘째 臟 肺

둘째 腑 小腸

셋째 脈	肝	셋째 腑	大腸
넷째 脈	脾臟	넷째 腑	膽囊
다섯째 脈	腎臟	다섯째 腑	膀胱
여섯째 脈		재생산을 위한 체액의 저장소	

⑥ 기타

毛髮 21,000개
空竅 9개

360개의 뼈중에서 각각의 척추골은 경락과 유사한 표식을 갖는 4개의 뼈가 합쳐진 것으로 계산한다. 여자는 子宮으로 들어가는 문과 두 개의 유방을 합쳐서 계산하여 12竅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상적으로 분배된 사람의 몸은 키가 쪽 뽀은 양팔의 길이(4cubits)와 같다고 한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분배된 사람의 몸은 키가 쪽 뽀은 양팔의 길이(3½cubits)보다 짧다. 1 cubit은 腕尺, 즉 팔꿈치에서 3째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5. 血脈의 정상상황

인체의 혈맥을 구분하면 크게 初成脈, 依存脈, 連結脈, 壽脈으로 나눌 수 있다.

1) 初成脈(channel of embryonic formation)

初成脈은 다음과 같이 배꼽에서 3개의 경로로 나뉜다.

- ① 상행하여 뇌를 형성. 痴愚는 뇌속에 있으므로 培根은 上部에 속한다.
- ② 중간으로 가서 命脈을 형성. 怒瞋은 血液에 속하므로 赤巴는 中部에 속.
- ③ 下延하여 密處를 형성. 남녀의 탐욕은 密處에서 생겨나므로 期症은 下部에 속.

이 脈은 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세가지 脈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배꼽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脈은 수분을 운반하며 상행하여 뇌를 형성하고, 妄想의 근원이 되어 粘液을 생성한다. 오른쪽에 있는 脈은 血液을 운반하며 壽脈을 형성하고, 증오의 근원이 되어 膽汁을 생성한다. 배꼽 밑에 있는 經絡은 風을 운반하며 密處를 형성하고, 密處는 욕망의 근원이므로 風을 낳게 된다. 이들 세가지 脈은 그림상으로 왼쪽 脈은 흰색으로, 오른쪽 脈은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뒤에 언급되는 黑脈, 白脈과 유사한 듯 하다. 이들 세가지 脈은 5가지 지점에서 합하게 되는데, 이는 각각 정수리, 목구멍, 심장, 배꼽, 음부이며, 이곳에서 교합하면서 24개의 주요 經絡과 500개의 작은 經脈을 放散한다.

이중에서도 심장에 연결되는 脈動이 느껴지는 經脈은 風과 血을 같이 운반한다.

위의 내용을 다시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子宮에서 人體가 형성될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은 배꼽의 중심에 생기는 命脈이다. 여기에서 3개의 經脈이 뿜어 나간다. 그 중의 하나는 水分(달의 성분)이 지나가는 통로로서, 인체의 왼쪽을 지나면서 심장, 목구멍을 지나 머리의 가운데에 있는 접합점의 중앙으로 간다. 이 중심에서 白脈이 머리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腦를 형성한다. 腦는 점액을 생성하며 無知, 어리석음과 우울함의 근본적이고도 부차적인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졸린 증상과 우울한 증상은 대부분 머리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血液' 또는 '火의 要素'를 運搬하는 經脈은 배꼽의 중심에서 肝의 바닥으로 뿜어가며 여기에서 飲食의 精華를 끌어내는 經脈과 연결이 된다. 여기에서 이 經脈은 10째 척추로 간다. 이곳에서 이 經脈은 黑脈과 그 가지로 화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갑자기 화가 날 때 인체의 중앙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배꼽에서 오른쪽의 脈은 心臟으로 가서, 목구멍으로 하여 머리의 중앙에 있는 접합점으로 간다.

중앙에서 心臟을 통하여 머리로 風을 운반하는 經脈이 흐른다. 하나의 가지는 생식기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형성을 돕는다. 이는 精液을 생산하며, 욕망의 원인이 되므로 과도한 욕망은 風病의 원인이 된다.

이 세계의 脈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하나의 접합점, 즉 중심이 형성되며, 바퀴의 살처럼 4개의 經脈이 이 중심에 직각을 이루면서 퍼져 나온다. 각각의 중심에서는 또 오른쪽 脈에서 10개, 왼쪽 脈에서 10개의 經脈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중심에는 24개의 큰 經脈이 있는 셈이다. 중심에서 나온 4개의 經脈에서는 25개의 작은 經脈이 발생하고, 오른쪽 맥과 왼쪽 脈에서 나온 20개의 經脈에서는 각각 20개의 經脈이 나오므로 한 개의 중심점에서는 모두 500개의 작은 經脈이 나오는 것이다. 이들 중심점은 인체의 健康과 發育을 담당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2) 依存脈(channel of existence)

- ① 六根¹¹⁾을 형성하는 脈輪. 뇌에는 500여개의 依存脈이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감각을 수용하는 기능을 한다.
- ② 六識五蘊¹²⁾을 형성하는 脈輪. 심장에는 500여개의 依存脈이 있다.
- ③ 육체를 발육하는 脈輪. 臍部에 500개의 依存脈이 있다. 발육과 유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 ④ 후세를 生育하는 脈輪. 생식기관에는 500개의 依存脈이 있다.

결론적으로, 依存脈은 온몸에 두루 퍼져있어 生長養育하는 기능을 발휘하며, 모두 중앙의 命脈과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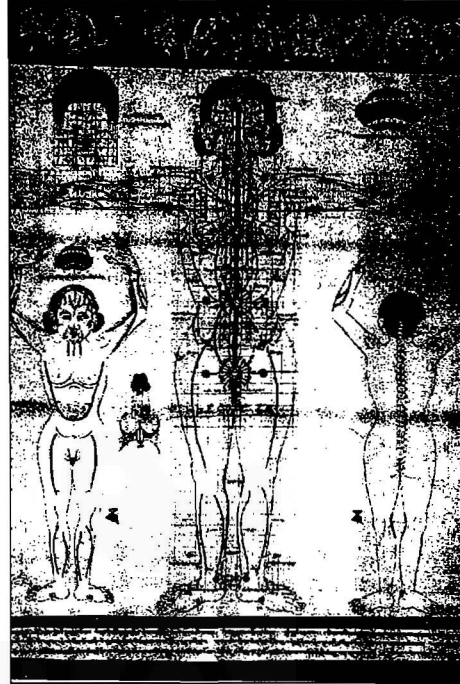
11) 六根: 眼, 耳, 鼻, 舌, 身, 意를 가리킴. 一心所依者, '六情'이라고도 함.

12) 六識: 六根에 대칭되는 見, 聞, 嗅, 味, 觸, 思慮 등의 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意識.

五蘊: 色蘊, 受蘊, 想蘊, 行蘊, 識蘊. '五衆', '五陰'이라고도 함.

있게 수행하며 다른 經脈과는 조화를 이룬다.

그림 1) 인체의 초성맥



3) 連結脈(連接脈-channel of connection)

黑白의 2개로 나뉜다.

① 黑脈(Black Channel of Life)

命脈은 마치 나뭇가지 모양으로 위를 향해서 뻗어있으며, 血肉을 증장시키는 脈 24개, 臟腑와 연결되어 은닉하는 大幹脈 8개, 四肢와 연결되며 노출되는 脈 16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발생되며 刺鍼, 瀉血 할 수 있는 脈이 77개, 刺鍼, 瀉血 할 수 없는 위험한 脈이 112개가 되어, 이를 모두 합하면 189개가 된다. 그중에서 120개의 脈이 皮膚肌肉과 相連되며 小支脈은 모두 360개가 있고, 그곳에서 700개의 小支脈이 나온다. 이런 小支脈에서 더욱 미세한 脈이 분출하여 온몸을 덮는다.

黑脈은 오른쪽의 經脈에서 발생하며 13번째 脊椎

에서 脊柱와 병행하여 胸柄部까지 간다. 위의 經脈은 脈動이 느껴지는 經脈과 안 느껴지는 經脈으로 나뉘며, 이를 간단하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8개의 經脈 - 五臟六腑에 연결, 보이지 않음

16개의 經脈 - 머리와 四肢로 연결, 보임

- 2 - 命脈이 위에서 兩分된 것으로 Black Extremity라고 명명
- 2 - 頸動脈
- 2 - 肝脈에 연결
- 4 - 四肢로 연결
- 4 - 心臟에 연결
- 2 - 生殖器에 연결

이 黑脈에서 血液이 흐르는 모든 血管이 派生되는 것이다. 黑脈은 脾臟의 중앙에서 생성되어 氣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血管에 血液이 채워지도록 한다. 이는 1번 척추에서 脊柱와 평행하게 내려간다. 여기에서 목을 통과하며 나가는 24개의 經脈이 파생된다. 이들의 목적은 肌肉과 血液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3번 脊椎에서 心臟과 肺의 前葉으로 派生되는 經脈이 나간다. 9번 頸椎에서는 肝과 연결되며, 11번 脊椎에서는 脾臟으로 연결된다. 13번 척추에서는 정맥과 관련된 經脈이 뻗어가며, 14번 척추에서는 腎臟과 연결되는 2개의 經脈이 갈라져 나간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8개의 보이지 않는 經脈으로 秘密經脈이라고도 불린다.

② 白脈(White channel of life)

黑脈이 右脈에서 발생하는 것에 반하여, 白脈은 腦를 통하여 左脈에서 퍼져 나온다. 腦는 白脈에서 발생되며, 水脈 혹은 白脈의 바다와 같은 근원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이곳에 의하여 인체의 수분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뇌의 뿌리 혹은 기저부위에서 生命의 白脈은 뿌리처럼 밑으로 내려가면서 차차 가늘어져 脊柱를 따

그림 2) 인체의 흑맥



라 尾骨까지 간다. 이를 生命의 經絡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것이 모든 白脈중에서 가장 손상받기 쉬우면서 가장 根本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腦의 기저에서 발생하는 白脈에는 五臟六腑와 연결된 13개의 숨은 經絡과 四肢와 연결된 6개의 可視的인 經絡을 포함하는 19개의 주요 水脈이 있다. 전자에 있어서 4개의 經絡은 風과 연관이 있으며 心腸, 小腸과 연결되어 있고, 膽汁과 연관된 4개의 經絡은 肺, 大腸, 肝, 膽과 연결되어 있으며, 粘液과 연관된 4개의 經絡은 脾, 胃, 腎, 膀胱과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한개의 經絡은 이 세가지 요소(風, 粘液, 膽)를 모두 포함하면서 재생산을 위한 체액의 저장소에 연결되어 있다. 후자인 6개의 經絡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학설이 많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분이 많이 쓰이고 있다.

7) 管象經絡(Tubular channel-管子형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命名)

posterior fontanelle 부분에서 腦로부터 갈라져 나오며, 제1번 경추를 좌우로 접하면서 제5번 경추에서 脊髓와 합쳐져 12번째 척추에서 재생산을 위한 체액의 저장소 및 腎臟으로 연결된다. 14번째 脊椎에서 管象經絡은 각각 2개씩으로 나뉘며, 그중의 하나는 sciatic nerve와 동일하여 尾骨로 향하면서 골반과 acetabulum을 지나 thigh의 외측 절흔을 지나서 外踝로 내려가 발가락과 발바닥에 연결된다.

다른 하나는 골반을 돌아서 thigh의 전면으로 나와 무릎관절, shin까지 내려가며 그 이하로는 sciatic nerve의 external popliteal branch와 주행이 동일하여 엄지발가락을 연결하면서 발바닥에서 앞에 언급한 神經의 支脈과 연결이 된다.

나) 불구경락(Channel of lameness-다치면 사지를 못쓰게 되므로 그렇게 命名)

後頭(occipital rim)부위에서 양쪽 목덜미를 따라 시작되며, 첫번째 脊椎에서 각각 2개의 支脈으로 나뉜다. 이들중 1개의 支脈은 下支脈이며, 肺의 부위에 있는 脊柱와 병행하여 14번째 척추까지 내려가서 골반의 윤곽을 따라가서 thigh의 내면을 지나며, popliteus에서 표출하여 종아리의 곡선을 따라서 발꿈치로 가서 발바닥에서 管象經絡과 합쳐진다.

다른 하나인 上支脈은 어깨를 관통하면서 2개의 細支脈으로 나뉜다. 그중 하나는 deltoid 부위와 biceps를 지나면서 팔꿈치의 내측면에 이른다.

다른 하나는 어깨의 外緣과 上膊사이를 지나면서 팔꿈치에서 앞의 細支脈을 만난다. 그렇게 만나고 난 이 2개의 細支脈은 다시 합쳐지면서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행해 계속 가면서 至貴經絡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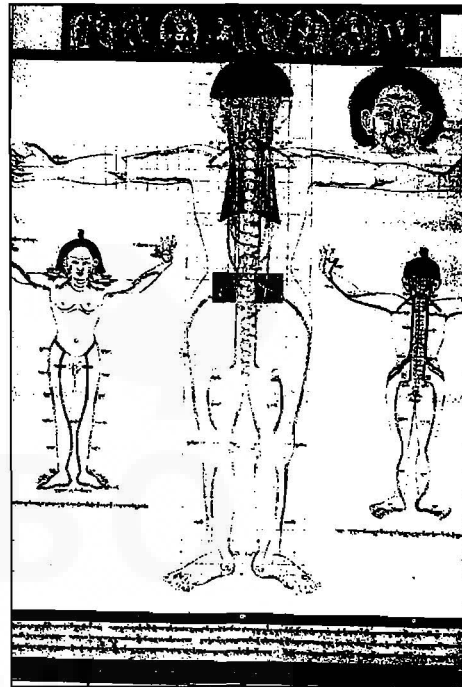
디) 至貴經絡(Amazingly precious channel-손상되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므로 그렇게 命名)

귀의 뒤쪽에 있는 腦의 부위에서 시작되며 鎖骨

의 뒤로 사라진 뒤에는 거드랑이에서 계속 주행하여 팔꿈치를 지나서 4번째 손가락으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손바닥에서 불구經絡과 만난다.

이들 6개의 經絡에서는 16개의 작은 水脈이 갈라져 나온다.

그림 3) 백맥



4) 壽脈(course of lifespan principle)

이를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 ①온몸에 퍼져있는 것.
- ②호흡을 따라서 전신을 통행하는 것.
- ③神游脈.

壽脈은 體內外 氣血이 運行하는 모든 空竅와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生長發育할 수 있게 하며 오래 생존할 수 있게 하여 신체의 근본이 된다.

壽脈이란 명칭은 미묘한 인체의 보이지 않는 經

絡에 속하며 생명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壽脈은 700여개의 血脈에서 파생되어 발생하는 미세한 모세혈관과 관련이 있다.

壽脈에 대한 세가지의 學說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은 다음과 같다. 몸에는 life span principle(tshe)이라는 것이 있어서 머리를 포함한 온몸을 관통한다. 이 壽脈은 심장의 중심부에 있는 'supreme seminal point'라는 곳에서, 이곳을 근원으로 삼고 있는 seminal or generative fluids를 全身으로 運送하는 자동차와 같은 존재라고 묘사된다. 이 supreme seminal point는 宗教적인 관점에서는 부처마음의 씨, 非宗教적인 관점에서는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의 근본이라고 한다.

이것이 최상의 깨달음에 의한 氣로 同化될 때는 마음과 그 기운이 해탈을 지향하게 되며, 그렇지않고 과거의 행적에 의한 氣로 자극되면 흩어지게 된다. 이 supreme seminal point는 작은 콩알이나 겨자씨의 크기로 비유되어지며 다섯가지 순수한 요소에 의해서 구성되어 진다. 이 五因은 그 색깔로 존재를 알 수 있게 한다. 대체적으로 말하면 흰색을 떠는 체액(generative fluids)은 태아에 있어서 뼈를 생겨나게 하는데, 이 골수에서 精液과 母乳가 생산된다고 한다. 붉은 體液은 血液, 肌肉과 皮膚를 생겨나게 한다. 단순히 말하자면 전자는 精液으로 후자는 血液으로 동일시되어진다.

더 자세히 언급하자면, 이런 seminal points들은 몸을 유지하는 생명유지체나 생명정화로 인식되어진다. life span principle의 course를 순환하면서 이들은 인체에 있어서 특정한 부위에서만 그들의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며, 30일이 한 주기를 이루는 달의 cycle에 대응하여 변화를 일으킨다.

男性에 있어서, 남성적인 것(masculinity)이 흰색인 왼쪽 經絡에 의해 대표되는데, 生命의 精華는 陰曆으로 첫째날에는 왼쪽 엄지발가락의 第一關節(발가락쪽 끝關節)에서 순환을 시작하며, 30일에는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第一關節에서 끝난다. 여성의 신

체에 있어서는 붉은 색인 우측 경락에 의해서 femininity가 대표되며 cycle은 왼쪽발가락의 第一關節에서 끝난다.

30일에 각각 순환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男性에 있어서)

- day 1 : 왼쪽 엄지발가락의 제1관절(발가락쪽 끝관절)
- day 2 : 왼쪽 엄지발가락의 제2관절
- day 3 : 왼쪽 엄지발가락의 제3관절
- day 4 : 왼쪽발목
- day 5 : 왼쪽무릎
- day 6 : 왼쪽 hip joint
- day 7 : 왼쪽 중지의 제3지절관절
- day 8 : 왼쪽 중지의 제2지절관절
- day 9 : 왼쪽 중지의 제1지절관절
- day 10: 왼쪽 손목
- day 11: 왼쪽 팔꿈치
- day 12: 왼쪽 어깨
- day 13: 목구멍
- day 14: 전정
- day 15: 앞이마
- day 15-16: 정수리
- day 16: 뒤통수
- day 17: 목
- day 18: 신장
- day 19: 오른쪽어깨
- day 20: 오른쪽 팔꿈치
- day 21: 오른쪽 팔목
- day 22: 오른쪽 중지의 제1중수지절관절
- day 23: 오른쪽 중지의 제2중수지절관절
- day 24: 오른쪽 중지의 제3중수지절관절
- day 25: 오른쪽 고관절
- day 26: 오른쪽 무릎관절
- day 27: 오른쪽 발목관절
- day 28: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제1중족지절관절
- day 29: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제2중족지절관절
- day 30: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제3중족지절관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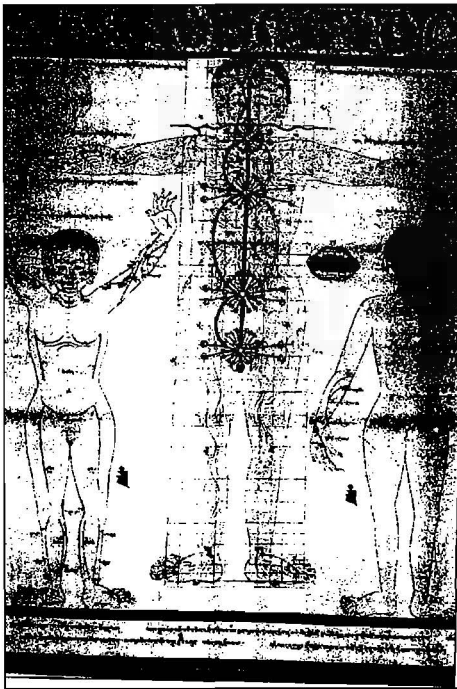
day 30-1: 양쪽 발바닥

주의깊은 醫師는 瀉血이나 施灸療法을 쓸때 이런 生命의 精氣의 昇降을 잘 알아서 要穴에 최대한의 氣運이 몰릴때 그것을 손상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두번째 學說에 의하면 壽脈의 精氣는 손목끝에 있는 ulnar edge에서 精氣의 脈象을 진단할 수 있으며 이 ulnar edge에서는 精氣가 몸을 떠나려고 바깥 쪽으로 강력하게 된다.

세번째 學說에서는 精氣와 呼吸(呼氣)와의 관계가 지적되고 있다. 精氣와 呼吸과의 관계가 이러하므로 의학적인 방법의로도 명상이라든지 요가를 통하여 호흡을 조절하므로써 葛藤의 감정을 승화시키며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림 4) 수맥



6. 손상받기 쉬운 신체부위(vernerable point)

* 要害 7處: 肌肉, 脂肪, 骨格, 靱帶, 筋髓, 臟腑, 脈道.

肌肉이 손상되었을때 - 腫脹.

骨格이 손상되었을때 - 疼痛.

靱帶, 筋髓이 손상되었을 때 - 跛行및 歪斜.

脈道, 脂肪, 臟腑가 손상되었을 때 - 生명이 위험, 치료하기 어렵다.

* 肌肉의 要害處 - 45군데.

* 脂肪의 要害處 - 8군데.

* 骨格의 要害處 - 32군데.

* 筋髓의 要害處 - 14군데.

* 臟腑의 要害處 - 13군데.

* 脈道の 要害處 - 190군데.

* 頭部の 要害處 - 62군데.

* 頸部の 要害處 - 33군데.

* 上下體腔의 要害處 - 95군데.

* 四肢의 要害處 - 112군데.

이상으로 要害處는 모두 302군데가 된다.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96군데로 가장 고명한 醫師라도 치료할 수 없다. 중간정도로 위험한 곳 49군데는 고명한 醫師라면 치료할 수 있다. 나머지의 요해처는 일반적인 醫師가 치료할 수 있다.

7. 孔竅.

① 內部孔竅 - 呼吸, 精氣, 穢物이 통행하는 孔竅.
- 물과 음식물이 운행하는 孔竅 13處.

② 外部孔竅 - 머리에서 7군데.
- 密處에서 2군데.
- 女子는 子宮口와 兩乳房이 있어 3

개가 더 많다.

이상 孔竅의 모양은 대부분 둥글고 성기며, 가늘고 길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 마치 나뭇잎의 뒷면의 脈과도 같다. 인체는 이를 빌어서 영양을

흡수하여 부단히 發育하고 成長한다. 飲食, 起居, 行爲가 조화롭지 않아서 일단 孔竅가 손상을 받거나 막힐시에는 病이 생긴다.

III. 結 論

이상에서 〈論說醫典〉중 第1, 2, 3, 4章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人體의 發生學에 관한 第2章의 내용에서, 티벳의학에서는 父精과 母血의 상태를 매우 중시하며, 妊娠이 되기 위한 최우선의 조건으로 삼고 있었으며, 五行에 관해서도 매우 중시하였다. 그리고 38주 동안 胎兒가 발생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각 臟器가 생성되는 순서, 經絡의 생성, 감각기관의 형성에 대해서도 깊게 고찰할 수 있었다. 다만,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妊娠될 때에 意識이 아버지의 몸에 들어온다는 관념으로, 의식의 구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놓고는 있으나, 이는 과학적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종교적인 관념이라고 思慮된다.

2. 妊娠의 병적인 측면에 관해서는 朗症, 赤巴, 培根이라는 상태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을 냄새, 색깔, 맛에 따라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望診과 聞診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3. 태아의 성별이 결정되는 요인으로, 意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경우, 受胎되는 날짜에 의한 경우, 父精과 母血의 量으로 결정되는 경우등, 크게 세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날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나, 父精母血과의 관계는 韓醫學과도 유사하다고 思慮된다.

4. 제 3장에서 人體를 家屋과 皇帝의 宮殿에 비유하는 것은 <黃帝內經>의 <靈蘭秘傳論>에서 비유한 것과 매우 유사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 비유대상은 틀리나, 의미에 있어서는 大同小異함을 알 수 있다.

5. 제4장의 人體의 生理的인 狀況을 묘사한 부분에서는, 人體의 解剖圖를 앞면과 뒷면으로 나뉘서 毛髮과 汗空까지 갯수를 기록할 정도로 解剖學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人體의 生理的인 구성성분을 일일이 그 量을 기록한 것은 매우 특이하며, 그 측정단위에 있어서도 그들 고유의 방법을 썼음을 알 수 있다.

7. 經脈의 분류에 있어서는, 血管과 神經의 흐름을 매우 중시했으며, 각각의 經脈이 모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韓醫學의 整體觀과 동일하며, 특이한 것은 水分이 따로 흐르는 經脈이 있다고 認識한다는 것이다. 經脈중에서도 黑脈이 척추에서 맏히는 부분은 韓醫學에 있어서의 膀胱經에 있는 臟腑의 輸穴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중요성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思慮된다.

以上으로, 간략하게나마 티벳의학의 一端을 살펴 보았다. 개중에는 종교적인 관념이 짙게 반영되어 남득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상당한 부분에서 韓醫學과의 類似性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오랜 세월동안 死藏되지 않고 繼承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보다 깊은 연구를 할 가치가 있다고 思慮된다.

參 考 文 獻

1. 馬世林 外 : 四部醫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년.
2. 김무생 역 : 密敎의 역사와 문화, 서울, 민족사, 1994년.
3. 장한기 : 티벳과 인도, 네팔의 문화산책, 서울, 한미디어, 1995년.
4. 남현옥 역 : 中國佛敎와 佛敎文化, 서울, 우리출판사, 1993년.
5. 홍윤식 : 만다라, 서울, 대원출판사, 1992년.
6. 李基成 : 藏傳佛敎, 神州, 新華出版社, 1991년.
7. 李永年 : 四部醫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년.
8. 俞慎初 : 中國醫學簡史, 福建省,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3년.
9. Ven. Rechung Rinpoche Jampal Kunzang : Tibetan Medicine, illustrated in original texts, London, Wellcome Institute of the History of Medicine, 1973.
10. Theodore Burang : The Tibetan Art of Healing, London, Publishers & Booksellers, 1974.
11. Anthony Aris : Oriental Medicine, An Illustrated Guide to the Asian Arts of Healing, London, 1995.
12. Anthony Aris : Tibetan Medical Painting, New York, Harry N. Abram Inc., 1992.
13. Peter H. Pott : Art of the World, New York, Crown Publishers Inc., 1964.